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잘 외면하라

(민2:1~34)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4절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주변을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라는 명령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잘 외면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잘 외면하라'
'직시한다'는 말은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대상을 똑바로 본다'는 말입니다. 직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선민도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봐야하는데 현실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직시한다'는 말 속에는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본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도 현실을 직시하면 결코 현실의 참 진실 된 의미를 알 수 없고 현실을 직시하는 한 현실의 본래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보는 직시(直視)를 현실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바라볼 때에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대상은 오늘 본문대로라면 성막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성막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현실을 직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잘 외면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엉뚱한 희망을 갖는다든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퍼붓는다든지 하는 것은 잘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잘 외면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해군 장교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8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미국 전체가 관심을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참혹한 포로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스톡데일에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짐 콜린스가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포로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로생활을 했냐고 물으니, 스톡데일이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가 말한 것이 굉장히 유

명해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꾸어지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하지요. 콜린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때에 대답한 것이 또 유명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낙관한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다가,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되기 전에 석방될 것이라는 믿음을 이어나가고, 또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또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반복되는 상실감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무언가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과 아무리 가혹한 현실이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가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희망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을 가진 자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희망은 다분히 현실 외면을 위한 도피처라는 의미가 있는 막연한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돈이 없어서 질식할 것 같을 때에 '내년에는 이 경제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갖고 있을 때에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사람을 더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희망에 마음을 도피시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더 큰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상실감에 포로수용소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은 '현실을 철저하게 직시하되 미래의 성공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질문을 한 번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포로수용소에 갇혔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포로수용소 못지않게 참혹한 지경으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냉철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는데 감옥 속의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인가? 결국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트남 수용소에서 죽으면 왜 인생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고, 짐 콜린스의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인생성공에 대한 관점 자체를 선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직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면 반드시 현실에 잡아먹히고 만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삶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현실에 잡아먹히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외면하고 막연하게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외면하되 잘 외면해야 됩니다.
현실을 잘 외면하지 않으면 선민일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지도 없습니다. 선민은 현실 속에 선민이 아닌 자들과 동일하게 사는 자들인데, 선민이 아닌 자들은 스톡데일처럼 현실을 직

시하고 난관을 극복해서 자기가 꿈꾸는 성공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현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다가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되 술, 도박, 게으름, 망각 등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민에게 현실을 주는 이유는 외면하라고 주시되 잘 외면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급박한 현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현실을 잘 외면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어떻게 잘 외면할 것이며 잘 외면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한 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20세~60세까지의 싸울 수 있는 장정 육십만 명을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가다가 쉬고 가고 하는데 쉴 때와 갈 때의 진영 짜기와 대열 갖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짭니다. 세 지파씩 네 곳으로 나눌 때 대표되는 지파들의 이름이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에브라임지파, 단지파가 동서남북 진영의 대표 격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가까이에 둘러서 진을 치고 나머지 열두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지파의 장막에서 나오면 방사형으로 되어있는데 중앙 길로 나오면 성막이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진영을 갖추어서 쉬다가, 출발할 때에는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세 지파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따라가고 중간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분해해서 들고 가고 나머지 두지파가 뒤 따라가는데 단지파가 맨 끝에서 갑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중심으로 대열을 갖춰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250만 명이 사막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놓여있습니다. 생명 현상을 염두에 두면 사막 자체가 엄청나게 급박한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사막의 환경 가운데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성막은 하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기착점이 됩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하늘 기운이 성막위로 내려와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흘러들어갑니다. 반면에 이들이 있는 이 땅의 현실인 사막은 죽음의 기운으로 250만 명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쇄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지점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과 사막이라는 현실의 죽음의 기운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맞이한 기운에 따라 장악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만이 있는 태초의 무(無) 위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바다와 산과 강과 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기운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선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운입니다.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신 분의 기운이 성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들이 놓여있는

사막이라는 현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기운은 무에서 삼라만상을 창조해내신 기운이고 그 기운이 아버지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의 기운을 등지고 급박해 보이는 사막의 현실을 직시해서(마음을 줘버려서) 사막의 현실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현실이 그대로 반복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한다면 사막의 현실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등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운을 맞이하면 사막의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정탐꾼 사건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두지파에서 한 명씩이 나와 가나안을 정탐하니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철옹성 같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전된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성된 우상숭배가 그 당시에는 보편화되어 있던 것으로 체계적인 고등 종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운을 봅니다. 나머지 열 명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서 직시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등을 돌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에게 현실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내가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잘 대처하며, 내 힘으로 못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극복해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급박할수록 등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등을 돌립니까? 현실을 잘 외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민이 현실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선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나의 현실을 직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면 반드시 현실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하늘의 기운이 나를 향해 몰려들어와서 내 속을 채우게 되는 하늘의 독상을 받게 되고, 나를 채운 하늘의 기운이 넘쳐흘러서 세상 바깥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서는 창조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며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다 정확한 분석이고 파악으로 현실직시를 통해서 나타난 정확한 파악은 전체가 다 오류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을 직시한 것부터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잘 외면하라더니 무슨 말이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만 땅의 현실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급박한 현실이 주어졌다고 할지

라도 그 급박한 현실보다 먼저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현실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현실이 더 앞선 현실이고 이 앞서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인 이 세상을 직시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급박한 현실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현실보다 앞선 급박한 현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현실을 피하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현실을 외면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현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고 내게 주어진 현실의 참 의미를 알고 계신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스톡데일 중장과 콜린스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포로수용소에서 현실을 직시한 것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현실을 직시하였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무엇이 현실입니까?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 현실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현실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 더 급박한 두 번째 현실입니다. 포로수용소가 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포로수용소를 마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마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보다 먼저 포로수용소를 집어넣으면 죄가 되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만이 포로소용수의 현실을 현실로 보고 직시하게 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있습니까? 돈 문제? 내일 회사가 망해도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사막에서 250만 명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그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현실보다 앞서서 관심을 두어야 될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한 회사를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급박하고 무엇이 우선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성막을 바라보면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상번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법궤인 말씀의 돌판,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식이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지금 양이 죽으면서 같이 죽고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

막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양이 죽는데 그 양이 나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마음에 담게 되는 내가 죽는 것으로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먼저 모시고, 법궤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나'라고 인정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자들로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마주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주했을 때에 하와 속에 세상의 기운인 사탄의 기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와를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그 때에 하와 속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기운이 아담 속으로 들어오면서 아담을 점령해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 등을 돌렸다면, 아담을 채우고 넘쳐흐르는 하늘의 기운이 하와를 건졌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와의 잘못이 아니고 아담의 잘못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자를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자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고 남편을 향하면 남편 때문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가집니까? 사업을 향하므로 불만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사업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사업과 연관된 모든 사람은 이미 사막의 기운과 세상의 기운에 먹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내가 현실을 직시한다는 명분 아래에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의 기운이 들어오고 먹혀버립니다.

세상의 현실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거룩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의 지성소에 첫 번째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도록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외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이 현실로 주어지더라도 이 땅의 현실은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입니다.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현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현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현실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하늘의 독상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현실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이 땅의 현실보다도 더 앞서서 주목해야 되는 현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더 앞선 현실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하늘 독상으로 우리가 하늘로 배부르게 되고 넘쳐흐르는 하늘의 기운들이 이 세상을 밀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성막을 대체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기지국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서있으면 세상 기운이 사람들을 통해서 몰려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체계가 다 기운인데 여기에 먹히면 걱정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세상기운이 들어왔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이게 먹힌 것입니다.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지'라는 것이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먹혀서 이제 이 세상의 머슴과 돈의 머슴살이로 노예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급박하므로 외면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기도원에서 30년을 살면서 하나도 급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시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그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급박하고 곤경이 가득한 현실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급박한 현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바라보면서 선물로 받고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현실을 잘 외면해서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본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약속의 길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잘 외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땅의 현실을 잘 외면하는 것이고 하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의 기운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현실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능하게 하시며 주님의 동선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만 직시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선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